

# 희생되는 후대

사사기 11:29-40, 누기복음 23:28

최정웅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복음 붙잡고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이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신 모습을 기념하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종에게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주셨으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받는 자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웃고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만 나누고 싶은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들만 더 많이 들리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라고 질병이 새로 등장을 했다. 임신부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태어날 아기가 ‘소두창’이라는, 머리가 작게 태어나는 병에 걸린다고 한다. 눈 윗부분의 머리가 너무 작아서, 뇌의 크기가 아주 작은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얼마 못가서 죽는다고 한다. 아직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금년에 올림픽경기가 열리는데 임신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중이다. 올림픽 때 임신부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책이 도무지 없는 것이다. 그러는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분해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았다가 붙잡혔다. 무슨 이런 일이 있었는가. 또 아버지가, 같은 부친인데, 딸을 너무 때려서 아이가 죽었다. 1년 동안을 방에 이불을 씌워 놓고 살았다. 그 아버지가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신학교 교수 목사라고 한다. 나는 너무 충격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다 일어날까. 그것도 말하면 다 알만한 신학교고, 역사가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식을 바르게, 의롭게 키우면 얼마나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나. 처음부터 두들겨 패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희생되는 후대를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졌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려고 한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학벌도, 지위도 상관없다. 이것은 삶의 정도도 상관없는 것이다. 지금 불신자 상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보면, 개인에게는 운명으로 다가오고, 가정과 가문에는 저주로 다가오며, 사회에는 전쟁과 재앙으로, 다툼과 분쟁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하고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은, 이 운명, 저주, 재앙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운명, 저주, 재앙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우리 후대들이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이 재앙을 막아야 하는데,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 후대가 희생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더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을 못 해주었을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너무 종교적 율법적 신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쳤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서,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

## 1. 첫 번째는, 이 재앙을 막는 복음운동이 절대로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 (1) 왜 세상에는 재앙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가?
  - ① 근본적으로, 영세 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한다. 원인 제공자인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 세상 신, 세상 임금으로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다.
  - ② 여기에 빠진 사람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재앙은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창세기 3장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상태다. 창세기 6장에, 육신의 쾌락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태다. 창세기 11장에, 세상의 가짜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 영적 상태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죄악과 타락에 빠지고 있다.
  - ③ 그러면서 자기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종교를 따라간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이요, 16장에 나오는 점술이며, 19장에 나오는 우상숭배다. 이것들이 문화가 되어서 완전히 지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온 지구가

귀신 동네가 되어 버렸다. 악령이 이렇게 준동하니 지금도 세상에는 재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일전에도 보니까, 굉장한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하면서 먼저 고사를 지내더라. 돼지 머리를 삶아서 상을 차려 올려놓고, 그 콧구멍과 입에 돈을 집어넣고 절하는 것이다. 그 돼지머리가 그 영화를 잘 되게 해 주겠는가? 천만 관객을 끌어들였는가? 어쩌다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가? 여러분, 실험해 보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하려 하거든, 시작하기 전에 말해 보라. “당신은 만물의 영장인데 어째서 이런 것을 하느냐?” 그러면 남 고사 지내는 것 방해한다고 싸움을 건다. 쫓아내고 화를 낸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말해 보라. “자네는 만물의 영장인데 무슨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화도 안 내고 말한다. 웃으면서 말한다. “야, 장난인데 뭘 그래. 다 장난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걸리하고 같이 먹는다. 무슨 장난을 이렇게 칠 수 있는가. 이런 장난이 무슨 레크리에이션이 되겠는가. 그 정도로 세상은 지금 악령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2) 그러면 이 재앙을 해결할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

① 이 영세 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다. 사도행전 4:12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뿐이다. 구약의 메시야, 곧 신약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어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는 오직이 되어야, 비로소 운명,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저주를 끊는 길,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구상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이다.

②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창세기 3:15,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네피림 시대 때문에 온 홍수로 전 인류가 심판을 당하는 멸망을 막도록, 창세기 6:14의 방주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실패를 막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

③ 특히 저 우상 문화를 치유하고, 여기에 빠져 있는 후대를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파고들었다.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다. 학원이다. 사도행전 17:1, 18:4, 19:8에 보면, 바울은 회당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약 5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60%가 교회학교가 없어져 버렸다. 큰일 난 것이다. 있는 교회학교들도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 후대를 살리고 문화를 살려서 지구를 치유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었다가, 확실하게 해야 한다. 현수막을 여러분이 봤지 않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아요, 설교 잘 해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게 전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이유, 복음의 내용을 말해야 한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말해줘도 믿을 등 말 등 한테. 우리 손녀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왔는데 집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설명해 줬다. “너는 이제 원숭이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자꾸 알려주더라. 지금 사람들이 복음의 진실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 믿으면 잘 된다, 부자된다, 공부 잘 한다’ 하는 것이다. 뭐가 잘 되는가? 박사가 되어서 들어온 목사가 딸을 잘 키우겠다 하다가 딸을 때려죽였는데. 여러분, 올해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한다.

## 2.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다.

(1) 입다는 사사다.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자기 후대는 희생에 당하게 되었다. 자기 딸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불태워 드렸다.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어디에서 배운 종교, 어디에서 배운 미신을 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는 말이다. 재앙을 막고 완전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문제다.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에게는 유교의식, 불교의식, 샤머니즘이 새겨져 있어서, 무슨 사건만 생기면 그리로 빠져

들어간다.

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재앙이 찾아왔는데, 영세 전 문제, 창3, 6, 11장 문제, 행13, 16, 19장의 문제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에 빠지고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되었다.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지배하게 되었다.

②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내고 복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딤후2:4). 이것을 입다라는 사람이 붙잡았는데 성령충만이 임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에게서 구원했다. 잘한 일이다.

③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다. 이스라엘을 구해 냈는데 정작 자기 외동딸, 무남독녀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적은 있다. 성경에 그것 딱 한 번이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려고 할 때 급하게, 하나님이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 옆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해 두었었지 않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자기가 돌아올 때 집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해 주는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한 것이다. 약속을 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집에 강아지라도 바치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다른 말로는, 부부 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부인 나오면 그 핑계로 보내야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도 모르겠다. (웃음) 너무 긴장되어 있으니깐 좀 풀자고 한 이야기이지, 설마 그랬겠나. 그런데 하필 자기를 무남독녀 외동딸이 맞이하러 나오는 것이다. 너무 기가 차지 않나. 그러니까 입다가,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구나. 어찌 네가 나오느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내가 나오면 되겠느냐." 결국 자기 딸을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버리지 않나. 이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던 짓거리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시킨 적도 없다. 시켰다가도 취소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내용인데,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2) 왜 후대가 희생되는가. 왜 이런 맹랑한 신앙을 가지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를 주신다고 믿었는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사머니즘적으로 이해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라.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다.

① 입다가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각인되었던 복음 아닌 상처를 바꾸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옛날에 그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된 것이 있었다. 여러분 속에도,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도 사머니즘, 불교, 유교 사교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넘어지면,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를 안 나가서 그런가.' 이렇지 않나. 자, 사사기 11:1-7을 보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나. 이것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았다.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다.

②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뿌리가 또 있었다.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리면 마음에 흡족해서 뭘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사사기 11:30-31에, 엉뚱한 서원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16:24)."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4)."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지, '네 자식을 잡아 바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악령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꼭 뭘 조건으로 걸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곧 종교 아닌가.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다가, 원색적인 복음, 진짜 복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바알 신, 아세라 목상 섬기는 자들이 하던 것이다. 그 동네 살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던 것을 본받아 버린 것이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뿌리인데, 복음 대신에 이 뿌리가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혹시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나. 빨리 털어버려라. 이번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욕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3:10, 23) 그것은 배움으로, 돈으로, 권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오직이 되고, 이 복음이 체질화될 때만 해결되는 문제다.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은 전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전부 불륜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6:1-9은 말씀한다. "그런 일을 보거든 너도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돌아서라."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돌아서야 한다.

③ 입다의 이런 문제가 복음 아닌 체질, 쉽게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체질과 맞아져 버렸다. 사사기 11, 12장을 보면 입다가 흥분에 잘 빠진다. 흥분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복음과 맞지 않으면 육신 체질에 빠져서 성령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분노 내어도 하루 종일 품지 말고 빨리 버리라고 했다. 복음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 아니면 사람이 결국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 재앙을 막을 길은 완전 복음 밖에 없다.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야만 한다. 지금 기독교가 회미해지면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 있나 하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가 같다 하는 종교통합운동이 나온다.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후대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후대 살리는 응답을 받는 한 해를 살게 되기를 축원한다.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재앙을 막을 절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이다. 이것 안에서 그러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의 모든 상처 대신에 복음 누리는 감사가 각인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다시 말씀드린다. 모든 상처를 이기고 넘어서서, 복음 누리는 감사가 각인되고 뿌리내려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이것이 금년 우리의 주제다. 종교가 아닌 복음에 뿌리내리는 응답을 받아야만 한다. 반드시 받으시기 바란다. 계속 들어라. 그리고 내 말에 아직도 복음 아닌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있지 않는지 주의해라. 내 말과 행동과 시스템 속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은지 보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복음을 누리면서 내 생각, 감정, 방향이 전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체질이 되도록 은혜를 받으시기 바란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내가 살 뿐 아니라 후대가 살게 된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이 되어서 후대 살리는 전도운동을 시작하면, 이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게 된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후대가 곳곳에서 희생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후대의 희생을 겪었다. 세월호에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었다. 어른들의 불찰과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안 바뀌고 있다.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참사에 희생되었던 우리 고해를 램프도 생각한다.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이 전부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희생된 램프들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아픔과 한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후대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후대를 살리는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 후대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복음으로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화져가고, 문명은 발전하는데, 문화는 발전하는데, 저들의 심령은 점점 더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이 망해가는 세상을 어찌 살릴 수 있는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고 완전으로 누리며, 후대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성질과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의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